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대인관계역량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Students

1차원고접수: 2023.04.09. 수정원고접수: 2023.11.24. 최종게재결정: 2023.12.13.

안이현¹ · 김세영²

¹백석기독교전문대학원 상담학과, 박사수로

²백석대학교 상담학과, 조교수

Ahn, I-Hyeon¹

Kim, Seyoung²

¹Dept. of Counseling, Baekseok Cristian College

²Dept. of Counseling, Baekseok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 정서조절,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 대인관계역량, 정서조절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1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 정서조절 및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둘째, 정서조절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대인관계역량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정서조절을 향상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 대인관계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대학생, 부모의 심리적 지지, 대인관계역량, 정서조절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support, emotion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students, an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support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The questionnaire used in the study included measures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support,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emotion regulation,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211 participants through an online survey. As a result of the study,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confirmed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support, emotional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relationship building competency, leadership competency, and cooperation competency) in college students. Also, emotion regulation was confirme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ies (relationship building competency, leadership competency, and cooperation competency) in college student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nseling or educational intervention to strengthen emotion regulation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improving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Keywords college students, parental psychological support, interpersonal competence, emotion regul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사회적 관

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만큼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량은 개인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발달적 과도기로,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와 함께 대학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교수, 선후배,

* 본 논문은 한국인간발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김세영 (Kim, Seyoung)

백석대학교 상담학과, 조교수 (Department of Counseling, Baekseok University) E-mail. seykim@bu.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친구 등 이전에 비해 확대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김미정, 2021; 이미영, 2020; 이지은, 곽혜원, 2017). 이 시기에 관계 영역을 넓히고 적극적이며 교류적인 대인관계를 영위해 나가는 것은,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관계를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과 성인 초기의 친밀감 형성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김미선, 주은지, 2020; 김혜숙, 2022; 서현석,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대인관계역량이다.

역량(competence)이란 본래 직업 교육 또는 기업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것으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활동과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충족하는 능력이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Rychen & Salganik, 2002). 역량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개념들로 분류되며 개념화될 수 있는데, 대인관계역량이란 다양한 사회적 맥락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월하게 달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의 심리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연계를 어려움 없이 잘해 나가며, 내·외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해 나가는 힘이자 행동, 능력, 태도를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을 의미한다(권민철 등, 2014; 전명순, 권일남, 2012; Klinkosz, Iskra, & Artymiak, 2021).

대학생 시기는 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단계 중 하나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는 방법,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 개인 및 직업 생활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축적되는 시기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조별 과제, 동아리 활동 등 타인과 협업하며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소통하며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Klinkosz et al., 2021).

그러나 실상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대인관계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채 관계로 인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이찬희, 조영아, 2015; 이한샘, 2014). 여성가족부(2017)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상담 중

전체 건수의 24%에 해당하는 33,106건이 대인관계 문제를 다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우울, 무기력,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와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조영희, 2023; 황희훈, 김예진, 정다송, 이덕희, 이동훈, 2022), 원만한 대인관계 경험과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대인관계역량의 제고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이경은, 최효신,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하며 관계하기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인관계역량을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으로,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장근영 등, 2016). 대인관계역량을 세부적인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관계형성 역량’이란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협동하며 가족과 교우, 사회를 신뢰하여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자기 개방성과 친화성을 토대로 타인에게 공감 및 배려하며 의사소통하는 역량이다. ‘리더십 역량’은 개인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이며 가치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타인과 함께 의사결정을 통해 집단활동을 관리하여 추진하는 역량이다. 그리고 ‘협동 역량’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촉진하며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량이다(김남정, 2017; 성은모 등, 2015).

대학생에게 대인관계역량의 중요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역량은 실제 생활에서의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담보하고(전명순, 권일남, 2012),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며(이경은, 최효신, 2023),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도 기여하는 주요한 능력으로 확인된다(이시연, 2017). 대인관계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자기효능감(김소영, 2021; 정유선, 박선환, 2021; 조형정, 윤지영, 2016), 자아존중감(임양미, 2020), 갈등해결 능력(Konrad, Wick, & Barth, 2020)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과, 학습환경과 학습경험 등의 사회 환경 변인이 주로 언급되며 연구되고 있다(권민철 등, 2014; Han & Son, 2020; Persich & Robinson, 2022). 특히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경험하는 신뢰감이나 안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 등과 같은 심리적 지지가 대인관계역량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Oh & Yoon, 2017; YPcel & Tuzcuoglu, 2021). 후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점차 독립적인 개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경제적 독립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경험하는 시기이다(Arnett, 2007). 이러한 양가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대학생인 자녀의 대인관계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이다(Oh & Yoon, 2017).

여기서 부모의 심리적 지지란,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사랑이나 관심, 인정, 도움 등의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한다(문정희, 2018).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지지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며 부모로부터 기본적으로 수용되고 승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Chentsova Dutton, Choi, & Choi, 2020). 이러한 심리적 자원과 경험을 내면화하는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부모와의 연결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 도움을 받고 좌절을 극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강화해 가게 된다(김혜경, 이소영, 2020). 즉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지지를 경험하는 자녀일수록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본기를 보다 탄탄하게 갖추게 되는 것이다(박경희, 임수진, 2023; 이형화, 장형심, 2015).

실제로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개념인 ‘관계형성 역량’의 공감 능력, 자기수용, 인지적 유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상근, 이정운, 2019; 임희수, 임은미, 2020; 황예은, 이지민, 2020; Dakin, 2006). 또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는 ‘리더십 역량’에 해당하는 집단활동 관리능력(허승연, 2006)과 의사결정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곽환수, 이수림, 2020), ‘협동 역량’의 세부 요소인 문제해결과 갈등해결 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권재환, 박희현, 2014; Brannen-McNulty, 2002; Hornby & Witte, 2010). 즉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역량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경험하는 반면(이찬희, 조영아, 2015; Brodie, 2004), 부모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대인관계역량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Taş, 2023).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부모의 심리적 지지는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역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개인 내적 측면에 해당하는 정서조절 역시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된다(이시연, 2017). 정서조절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부정정서를 없애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조절적인 측면으로, 상황적인 요구에 맞게 정서의 경험과 표현을 조율해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김현이, 송미경, 2018). 정서조절을 통해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자각하고 긍정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서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이 잘 발달될수록 스트레스 사건을 겪는 순간과 이후에 통제력을 잘 유지하며(Garnefski & Kraaij, 2018),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는 심리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적절한 감정조절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황필주, 이인석, 전무경, 2011). 정서조절을 통해 부정정서를 줄이고 정적정서를 증가시키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조화를 이루어 감으로써(장정주, 2015), 긍정적인 대인관계역량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대학 생활 적응을 이루어 갈 수 있다(강보석, 2015; Tang, Jiang, Zhang,

& Chang, 201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조절은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관계형성 역량’의 세부 요인인 친화성, 개방성, 이해성과 의사소통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고현록, 김정희, 2014; 김수열, 2021; 장정주, 2015; Libbrecht, Lievens, Carette, & Cote, 2014), ‘리더십 역량’에 해당하는 직무성과와 역할 추진력, 집단활동 관리(김태구, 2018; Druskat, Mount, & Sala, 2013; Goleman, 1998)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협동 역량’에 해당하는 갈등 다루기(김미선, 주은지, 2020; 이민선, 채규만, 2012; Davis, 2011)와 집단추진 능력(Goleman, 1995)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요컨대 정서조절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대인관계역량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정서조절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의 사려깊고 애정적인 태도와 수용적인 심리적 지지는 자녀의 정서조절에 매우 밀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특히 부모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의 정서조절 발달을 주요하게 예측한다는 것이다(Summers, 2004). 정서지능의 구성개념으로 정서조절을 연구한 Mayer와 Salovey(1997) 역시 개인의 정서조절은 부모와 자녀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기초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으며, Goleman(1995) 역시 정서조절은 환경 내에서 분화되고 발달되는 능력으로, 정서조절의 발달에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경험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안정적인 부모자녀관계 가운데 부모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대학생일수록 정서조절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된다(유나현, 이기학, 2005; 주혜원, 배희분, 2020; Morris, Criss, Silk, & Houltberg, 2017). 즉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대학생 자녀의 정서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Karaer, Akdemir, 2019; Kullik, Petermann, 2013; Van Lissa,

Keiser, Van Lier, Meeus, & Branje, 2019).

이상의 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대인관계 역량(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조절이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상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론적으로 가정된 매개모형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면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중재방안과 관련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서영석, 2010). 특히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경로를 연결해 변인 간 관계 모형을 검증하고,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대인관계역량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이전의 연구들은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요인과 관련 변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 대인관계역량을 총체적 개념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역량이 행동과 능력,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며 통합적 개념인 동시에, 전체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 개념은 저마다 특정 상황에서 주어지는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권민철 등, 2014; 김경진, 2010), 대인관계역량을 관계형성 역량과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으로 구분하여 부모의 심리적 지지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보다 세밀히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대인관계역량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밝힌다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관계 확장과 협력적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역량 강화를 위한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모형(그림 1 참조)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정서조절 및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이 매개하는가?

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정서조절은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는 정서조절을 통해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에 간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의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개인정보동의서에 비동의를 하고 설문에 응답한 무성의한 응답자 1명을 제외

하여 최종 211명을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은 남학생 103명(48.8%), 여학생 108명(51.2%)으로, 학년은 1학년 41명(19.4%), 2학년 63명(29.9%), 3학년 49명(23.2%), 4학년 58명(27.5%)이었다. 연구대상의 거주지역은 경기도가 83명(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도 62명(29.4%), 서울특별시 41명(19.4%), 기타 25명(11.9%)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구 참여 당시 부모님과 동거 중인 대상은 105명(49.8%),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106명(50.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지지 척도

부모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문정희(2018)가 개발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척도의 하위 구성요인인 부모와 지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독립척도는 ‘자기신뢰’, ‘자율적 의사결정’, ‘부모와 지지관계’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와 지지관계 척도는 총 6문항(예: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 해도 유대감을 느낀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형태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척도 개발시 보고된 부모와 지지관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86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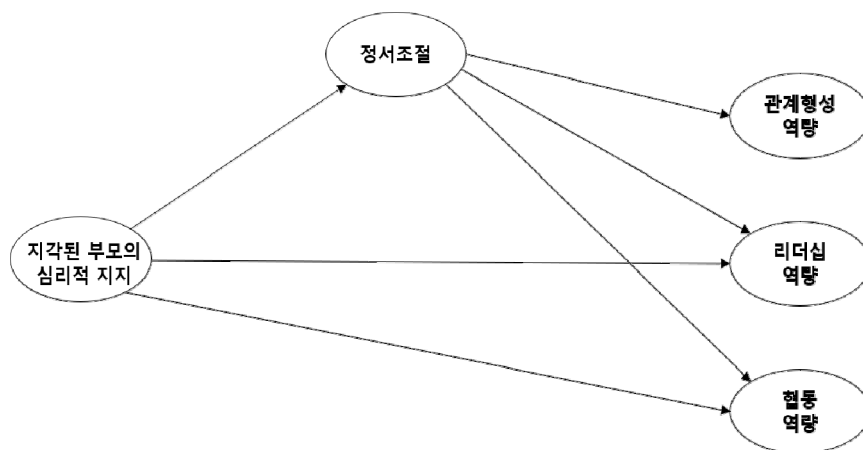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모형

2) 정서조절 척도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Wong과 Low(2002)가 개발하고 전유정과 이수범(2011)이 번안하여 수정한 감성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유정의 연구(2012)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하위척도로는 자기감성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으로 각 4문항씩 총 16문항이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감성조절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는 분노를 통제할 수 있고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한다.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형태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87,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유정의 연구(2012)에서 Cronbach's α 는 .90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 대인관계역량 척도

대인관계역량 척도는 장근영 등(2016)이 11세에서 22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역량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단축형 청소년대인관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형태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시 Cronbach's α 는 .88, 본 연구에서는 .97로 높은 수준이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관계형성 역량은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의 내용을 측정하는 12문항(예: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8, 이 연구에서는 .85였다. 리더십 역량은 의사결정, 집단활동 관리, 추진력에 해당하는 9문항(예: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을 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으로 개발과정에서 확인된 Cronbach's α 는 .91, 본 연구에서는 .88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협동 역량은 집단추진과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능력

을 측정하는 8문항(예: 나는 집단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으로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0, 이 연구에서는 .86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 연구절차

2022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편의표집으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 및 기타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212명에게 모바일 질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의 대학생으로 정확한 모집단의 규모를 추정하여 확률표집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편의표집에 해당하는 지원자 표집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다(성태제, 시기자, 2020). 세부적인 진행과정으로, 우선 연구자의 지인들을 통하여 접촉이 가능한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구 참여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 희망자에게는 연구의 목적 및 참여 방법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온라인 설명문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응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1부를 제외하고 총 21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 AMOS 22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빈도분석과 척도의 신뢰도 분석, 변인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구조모형분석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단일요인에 해당하는 변인 중 5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에 대해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구성하였다(문수백, 2009). 다음으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잠재상관분석을 실시한 뒤, 구

조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후 bootstrapping을 통해 .05수준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모형 검증

모형 검증에 앞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는 평균 4.05($SD = .78$), 왜도는 -.84, 첨도는 .36이었으며, 정서조절은 평균 3.71($SD = .88$), 왜도는 -.52, 첨도는 .02로 확인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세 변인 중 관계형성 역량은 평균 3.97($SD = .55$), 왜도는 -.35, 첨도는 -.25, 리더십 역량은 평균 3.69($SD = .70$)에 왜도는 -.04, 첨도는 -.57, 마지막으로 협동 역량은 평균 3.95($SD = .65$)에 왜도는 -.51, 첨도는 .45로 확인되었다. 왜도는 |3|, 첨도는 |10| 이하일 경우 정규성을 가정한 Kline(2005)의 견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자료는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 ($N = 211$)

	$M(SD)$	왜도	첨도
부모의 심리적 지지	4.05(.78)	-.84	.36
정서조절	3.71(.88)	-.52	.02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역량	3.97(.55)	-.35
	리더십 역량	3.69(.70)	-.04
	협동 역량	3.95(.65)	-.51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기준에 부합하였으며($CFI = .94 \geq .90$, $TLI = .93 \geq .90$, $RMSEA = .07(Lo = .06, Hi = .09) \leq .09$), 수렴타당도($\lambda = .54 \sim .91 \geq .50$)와 변별타당도($r = .37 \sim .84 \leq .85$) 모두 적합한 수준이었다(문수백, 2009).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 및 정서조절과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37 \sim .69, p < .00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조절,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및 협동 역량이 높아지며,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그리고 협동 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조회귀모형 검증

구조회귀모형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으며($CFI = .94 \geq .90$, $TLI = .92 \geq .90$, $RMSEA = .08(Lo = .06 \sim Hi = .09) \leq .09$), 모형 내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정서조절 33%, 관계형성 역량 86%, 리더십 역량 80%, 협동 역량 86%로 확인되었다(그림 2, 표 3 참조). 모형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지지는 정서조절($\beta = .57,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조절은 관계형성 역량($\beta = .96$,

표 2. 측정모형 검증 및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N = 211$)

	부모의 심리적 지지	정서조절	대인관계 역량		λ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부모의 심리적 지지					.70*** ~ .87***
정서조절	.42***				.74*** ~ .77***
대인관계 역량	관계형성 역량	.69***			.54*** ~ .81***
	리더십 역량	.62***	.66***		.86*** ~ .92***
	협동 역량	.66***	.68***	.76***	.75*** ~ .88***

$\chi^2 = 210.78^{***}$, $CFI = .94$, $TLI = .93$, $RMSEA = .07(Lo = .06, Hi = .09)$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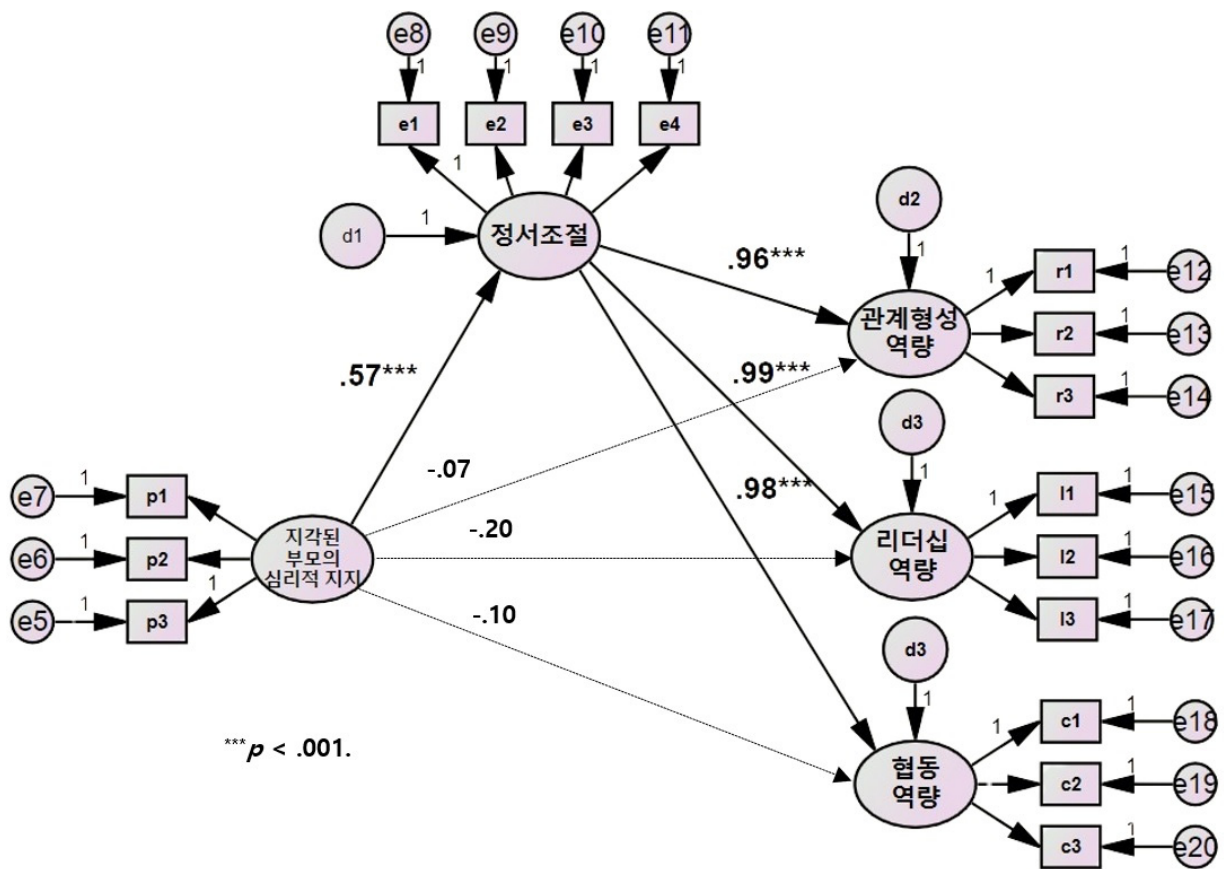


그림 2. 결과모형

표 3. 구조회귀모형 검증

(N = 211)

		B	β	C.R.	SMC
부모의 심리적 지지	→ 정서조절	.42	.57	5.41***	.33
부모의 심리적 지지	→ 관계형성 역량	-.04	-.07	-.68	.86
정서조절	→ 리더십 역량	1.08	.99	7.39***	.80
부모의 심리적 지지	→ 협동 역량	-.08	-.10	-1.06	.86
정서조절		1.07	.98	7.31***	

 $\chi^2(95) = 232.09^{***}$, CFI = .94, TLI = .92, RMSEA = .08(Lo = .06, Hi = .09)*** $p < .001$.

$p < .001$), 리더십 역량($\beta = .99$, $p < .001$), 협동 역량($\beta = .98$, $p < .001$)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지지의 관계형성 역량($\beta = -.07$, $p = .49$), 리더십 역량($\beta = -.20$, $p = .05$), 협동 역량($\beta = -.10$, $p = .29$)에 대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4 참조). Hair, Black, Babin, Anderson과 Tatham(2006)에 따르면 유의한 상

표 4. 경로별 효과분해

(N = 211)

		표준화된 추정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의 심리적 지지	→ 정서조절	.57**		.57**
	→ 관계형성 역량	-.07	.55**	.48**
	→ 리더십 역량	-.20	.57**	.37**
	→ 협동 역량	-.10	.56**	.46**
정서조절	→ 관계형성 역량	.96**		.96**
	→ 리더십 역량	.99**		.99**
	→ 협동 역량	.98**		.98**

**p < .01.

관관계가 검증된 변인 간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유의한 간접효과는 매개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지지의 정서조절에 대해 직접 효과는 .57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정서조절은 관계형성 역량에 .96, 리더십 역량에 .99, 협동 역량에 .98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지지의 관계형성 역량(.55)과 리더십 역량(.57), 협동 역량(.56)에 대한 간접효과 역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이 유의하게 매개함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윤지와 김정섭(2020)은 전환기 청소년(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애정과 합리적 설명을 바탕으로 한 양육 태도 및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대인

관계역량의 구성개념인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의 수준을 고르게 발달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서 나아가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대인관계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안정된 관계 경험이 대학생의 정서조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인관계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지지의 영향을 받는 정서조절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의 대인관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이며 단기적 개입으로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정서적 접근의 심리교육 및 프로그램 중재가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상담과 같은 환경 차원의 개입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대학생의 경우 교육이나 상담현장에서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중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학생의 부모와의 심리적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상담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인관계역량의 부족과 함께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의 경우, 대상관계이론적 접근의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부모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 내면의 부모자녀관계의 교정적 경험을 도모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최영민, 2010).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정서 조절,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먼저,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역량과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관계형성 역량(황예은, 이지민, 2020)과 리더십 역량(허승연, 2006), 그리고 협동 역량(권재환, 박희현, 2014; Brannen-McNulty, 2002)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정서조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역량, 리더십 역량, 협동 역량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것은 대인간의 관계 맺기(고현록, 김정희, 2014), 리더십 발휘(김태구, 2018), 그리고 협동하는 능력(Davis, 2011)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서를 잘 조절하는 것은 자기 개방성과 친화성을 토대로 타인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며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담보한다는 의미이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타인과 함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은 대인관계역량으로 이어져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효과적인 정서 및 행동전략을 동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와 정서조절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입증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사려깊고 애정어린 지지와 수용적인 태도가 자녀의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Morris, Criss, Silk, & Houlberg, 2017)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부모와의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자기대상(selfobject)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신뢰한다고 보는 대상관계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최영민, 2011).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토대로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고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가운데,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공적인 관계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모바일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응답자의 정서 상태, 시간적 제한으로 인한 빠른 응답, 허술한 태도 등으로 인하여 결과가 과장 혹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도 그리고 기타 지역에 위치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가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이 매개하는 모형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는 개입전략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대학생의 자기정서조절 향상에 상담의 초점을 두고 상담 전략을 수립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상담현장에서 대인관계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검증하고 교육상담 지도나 상담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 강보석 (2015). 대학생의 자기조절역량과 글로벌 역량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11), 241-250.
- 고현록, 김정희 (2014). 임상간호사의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능력, 직무만족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3), 413-423.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3.413>
- 곽환수, 이수림 (2020). 부모의 과잉통제가 자녀의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7), 675-702. <http://doi.org/10.22251/jlcci.2020.20.7.675>

- 권민철, 이예슬, 금창민, 박소연, 김동민, 강민수, 김예슬, 형민우, 최민정, 동명월 (2014). 대인관계역량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 343-364.
- 권재환, 박희현 (2014).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 지지 및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인간발달연구*, 21(2), 55-73.
- 김경진(2010). 역량의 개념과 교육적 함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정 (2017). 청소년참여와 사회적 신뢰, 대인관계역량 및 사회적 책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 주은지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1), 1021-1034.
<http://doi.org/10.22143/HSS21.11.1.75>
- 김미정 (2021).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051-1068.
<http://doi.org/10.22251/jlcci.2021.21.3.1051>
- 김상근, 이정윤. (2019). 대인관계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외상 후 장애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감사와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교육학연구*, 32(2), 1-22.
<http://doi.org/10.35283/erft.2019.32.2.1>
- 김소영 (2021).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역량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자기효능감, 자기가능성의 병렬삼중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1(4), 43-64.
<http://doi.org/10.34226/gcl.2021.11.4.43>
- 김수열 (2021).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청소년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우울, 대인관계,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지, 김정섭 (2020). 학교급 전환기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부모양육태도 영향요인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7), 47-66.
<http://doi.org/10.22251/jlcci.2020.20.17.47>
- 김태구 (2018). 호텔 고객접점직원의 대인관계역량으로서 감성지능과 정치기술. *호텔경영학연구*, 27(3), 171-190.
<http://doi.org/10.24992/KJHT.2018.04.27.03.171>
- 김현이, 송미경 (2018).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317-336.
<http://doi.org/10.33770/JEBD.34.4.13>
- 김혜경, 이소영 (2020).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 및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3), 1289-1308.
<http://doi.org/10.22251/jlcci.2020.20.13.1289>
- 김혜숙 (2022). 대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우울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탐색(I). *인격교육*, 16(1), 23-42.
<http://doi.org/10.18015/edumca.16.1.202202.23>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정희 (2018).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희, 임수진 (2023). 지각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와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안정성의 매개효과-. *문화와 융합*, 45(1), 357-371.
<http://doi.org/10.33645/cnc.2023.01.45.01.357>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현석 (201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후기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 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http://doi.org/10.15753/aje.2015.16.2.005>
- 성태제, 시기자 (2020).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상담지원현황_2017*. 서울: 여성가족부.
- 유나현, 이기학 (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51-466.
- 이정은, 최효신 (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사회적 관계망, 대인관계역량 및 문제해결역량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 103-113.
<http://doi.org/10.22251/jlcci.2023.23.2.103>
- 이미영 (2020). 대학생 멘토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교육 프로그램이 멘토의 대인 의사소통능력, 인성,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8(1), 13-23.
<http://doi.org/10.55063/KIYFE.2020.18.1.2>
- 이민선, 채규만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시연 (2017).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역량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8), 445-454.
<http://doi.org/10.14400/JDC.2017.15.8.445>
- 이지은, 곽혜원 (2017). 간호 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조화 간의 관계. *의료커뮤니케이션*, 12(1), 31-40.
<http://doi.org/10.15715/kjhcom.2017.12.1.31>
- 이찬희, 조영아 (2015).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1), 163-188.

- 이한샘 (2014).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요 발달과업과 대학생의 적응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화, 장형심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목표추구지향성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3(2), 25-49.
- 임양미 (2020). 여자 청소년의 비만도가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이중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7), 129-157.
<http://doi.org/10.21509/KJYS.2020.07.27.7.129>
- 임희수, 임은미 (2020).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417-437.
<http://doi.org/10.22251/jlcci.2020.20.20.417>
- 장근영, 성은모, 이정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이재희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70.
- 장정주 (2015). 긍정적 정서 증진 훈련이 대학생의 정적 및 부적정서, 정서조절의 곤란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421-443.
- 전명순, 권일남 (2012).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49-177.
- 전유정 (2012). Hospitality Management 전공 대학생의 성격특성이 대처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유정, 이수범 (2011). 특급호텔 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5(3), 109-127.
- 정유선, 박선환 (2021).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역량의 매개효과 연구. *인문사회* 21, 12(6), 1993-2007.
<http://doi.org/10.22143/HSS21.12.6.140>
- 조영희 (2023). 코로나19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 학업스트레스,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7(1), 225-233.
<http://doi.org/10.21184/jkeia.2023.1.17.1.225>
- 조형정, 윤지영 (2016). 대학생의 자아효능감과 대인관계역량 간 관계에서 자기관리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267-290.
<http://doi.org/10.22251/jlcci.2016.16.11.267>
- 주혜원, 배희분 (202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41-62.
<http://doi.org/10.21321/jfr.25.2.41>
- 최영민 (2010).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서울: 학지사.
- 최영민 (2011). 쉽게 쓴 자기심리학. 서울: 학지사.
- 허승연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4(3), 129-147.
- 황예은, 이지민 (2020).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과 공감능력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3-22.
<http://doi.org/10.21321/jfr.25.2.3>
- 황필주, 이인석, 전무경 (2011).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연구: 국제융합학술지*, 25(3), 311-330.
<http://doi.org/10.15843/kpapr.25.3.201109.311>
- 황희훈, 김예진, 정다송, 이덕희, 이동훈. (2022). 코로나 대유행이 부정정서, 우울, PTSD 증상,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4개월 단기종단연구. *상담학연구*, 23(6), 105-134.
<http://doi.org/10.15703/kjc.23.6.202212.105>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https://doi.org/10.1111/j.1750-8606.2007.00016.x>
- Brannen-McNulty, C. L. (2002). The role of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individuation: A mediational approach.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Quebec City, Canada.
- Brodie, C. S. (2004). *Adolescent-parent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adolescence: a study of a psychiatric and a non-clinical pop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 Chentsova Dutton, Y. E., Choi, I. J., & Choi, E. (2020). Perceived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s' positive self-beliefs and levels of distress across four countries. *Frontiers in Psychology*, 11, 353.
<https://doi.org/10.3389/fpsyg.2020.00353>
- Dakin, L.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family factors, emotional reactivity, and young adults' interperson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uburn.
- Davis, S. A. (2011). Investigating the impact of project manag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ir interpersonal competence. *Project Management Journal*, 42(4), 37-57.
<https://doi.org/10.1002/pmj.20247>
- Druskat, V. U., Mount, G., & Sala, F. (2013). *Link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formance at work: Current research evidence with individuals and groups*.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Garnefski, N., & Kraaij, V. (2018).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 Cognition and Emotion*, 32(7), 1401-1408.
<https://doi.org/10.1080/02699931.2016.123269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leman, D. (1998). The emotionally competent leader. *In The Healthcare Forum Journal*, 41(2), 36-38.
- Han, S. I., & Son, H. (2020).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on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students in classroom environments.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 and Teaching*, 7(1), 17-28.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NJ: Pearson Prentice Hall.
- Hornby, G., & Witte, C. (2010). A survey of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schools in New Zealand. *Pastoral Care in Education*, 28(1), 59-69.
<https://doi.org/10.1080/02643940903540363>
- Karaer, Y., & Akdemir, D. (2019). Parenting style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emotion regulation in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Comprehensive psychiatry*, 92, 22-27.
<https://doi.org/10.1016/j.comppsy.2019.03.003>
- Klinkosz, W., Iskra, J., & Artymiak, M. (2021). Interpersonal competences of students,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motional intelligence. *Current Issues in Personality Psychology*, 9(2), 125-134.
<https://doi.org/10.5114/cipp.2021.10573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lford.
- Konrad, T., Wiek, A., & Barth, M. (2020). Embracing conflicts for interpersonal competence development in project-based sustainability co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21(1), 76-96.
<https://doi.org/10.1108/IJSHE-06-2019-0190>
- Kullik, A., & Petermann, F. (2013).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s a risk factor for adolescent depressive disorder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regulatio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 537-548.
<https://doi.org/10.1007/s10578-012-0347-5>
- Libbrecht, N., Lievens, F., Carette, B., & Cote, S. (2014). Emotional intelligence predicts success in medical school. *Emotion*, 14(1), 64.
<https://psycnet.apa.org/doi/10.1037/a0034392>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9.x>
- Morris, A. S., Criss, M. M., Silk, J. S., & Houlberg, B. J. (2017). The impact of parenting on emotion regulat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1(4), 233-238.
<https://doi.org/10.1111/cdep.12238>
- Oh, J. H., & Yoon, H. (2017).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with par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2), 1-12.
<https://doi.org/10.5392/JKCA.2017.17.02.001>
- Persich, M. R., & Robinson, M. D. (2022). Fiv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personal competence: a review and integr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6(4), 464-486. <https://doi.org/10.1177/10892680221085507>
- Rychen, D. S., & Salganik, L. (2002, February).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In DeSeCo Symposium on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Geneva.
- Summers, F. (2004).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이재훈(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본 발간일, 1994)
- Tang, W. Q., Jiang, X. M., Zhang, M. Q., & Chang, Y. (2015). The impact mechanism of college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ass network on adaptability: A multilevel mediation model.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38(3), 618-624.
- Taş, İ.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otional abus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digital game addiction: A path analysis. *Indian Journal of Psychiatry*, 65(1), 45-51.
https://doi.org/10.4103%2Findianjpspsychiatry.indianjpsychiatry_263_21
- Van Lissa, C. J., Keizer, R., Van Lier, P. A., Meeus, W. H., & Branje, S. (2019). The role of fathers' versus mothers' parenting in emotion-regulation development from mid-late adolescence: Disentangling between-family differences from within-family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55(2), 377.
<https://psycnet.apa.org/doi/10.1037/dev0000612>
- Wong, C. S., & Law, K. S. (2002).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Yöcel, S., & Tuzcuoğlu, A. S. (2021).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emotional availability to parents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university students. *Humanistic Perspective*, 3(1), 27-42.

<https://doi.org/10.47793/hp.821626>